

# 해남군 원예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박차

### 배추·마늘 비효율 유통단계 감축 산지 중심 개편 생산자 수익 증대 원예산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유통 단계 감축과 생산자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편 움직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배추·마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유통구조를 산지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지역 농민회 및 품목별 단체 대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과 법인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수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변화된 정부정책과 유통환경에 맞춰 기존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전략목표인 배추·마늘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통 구조는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생산지의 규모화가 부족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신속한 수급과 분산이 가능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간 유통 상인만 이익을 보고



유통구조를 생산자중심으로 개편하고자하는 해남군이 지난 16일 원예산업발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정작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기능 확대와 공영도매시장 경쟁 구도 제도화, 거점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해남군은 용역을 통해 해남군 배추·마늘 등 겨울채소의 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산지 중심의 유통체계를 도입하고, 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군 원

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용역을 완료하고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최종 수정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승인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신속히 대처해 비효율적인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 농민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남군 원예산업발전을 위한 겨울채소 산지유통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사진)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보건·강진의료원 전담팀 인력 등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 하는 사업이다.

진료는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국가암검진 홍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관내 경로당 8개소를 월 1~2회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건강버스 의료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평소 거동이 쉽지않은데다 교통까지 불편해 병원이 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 마을까지 의료진이 찾아와 진료하는 사업에 대해 큰 호응을 보였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무안 일로 새마을부녀회, 삼복맛이 나눔 행사

### 어르신 500여명 삼계탕 대접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삼복 맛이 행복한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수 있

도록 정성 들여 준비한 밑반찬과 삼계탕을 제공했으며, 소년원의 아이들에게도 삼계탕을 지원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행사를 위해 관내에서 닭 유통업을 운영하는 대신푸드시스템에서 삼계탕용 닭 300마리를 기증해 온정을 전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범... "해양치유산업 선도"

### 4개 팀 일반 12명·공무직 25명 해양치유센터 등 시설 4곳 운영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분야의 기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하 해양치유공단)의 이재민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 공기업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해양치유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양치유관 해양기후(해풍·태양광·해양에어로졸), 해수, 해양생물(해조류·전복), 해양광물(갯벌·모래·소금·맥반석)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일관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공단 설립 추진 경과보고 ▲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완도군 제공>

출범 기념사 ▲케이크 커팅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치유공단이 출범하기까지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올해 3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공단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정관 및 규정을 추진 완료했으며, 6월 시범 운영에 이어 7월 1일에는 공단 신규 직원 임명식을 갖고 치유시설 운영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완비했다.

완도해양치유공단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기후치유센터·문화치유센터·완도타

워 등 시설 4곳을 맡아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한다. 공단 조직은 경영지원팀 등 4개 팀, 일반직 12명, 공무직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하 인사를 통해 "앞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해양치유산업을 내실 있게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완도 해양치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힐링 트렌드로 이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출범 기념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시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목포시립도서관이 2년 연속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원사업이다.

목포시립도서관은 목포시가족센터와 연계해 오는 10월까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도서를 읽고, 느끼고, 표현해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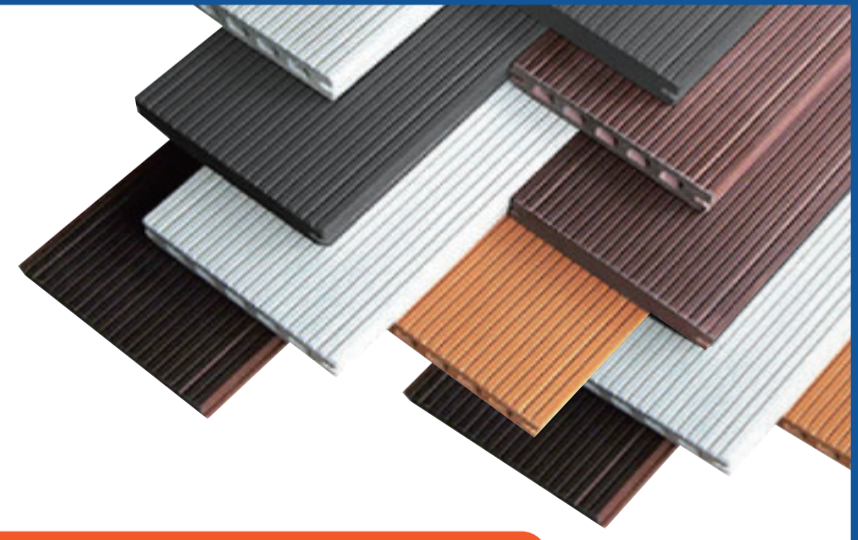
도서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ISO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